

일제하 승려대회 사찰령등 '식민불교'에 항거

청년회 주축 107명 참가...자주성 확립 증헌·종회법 제정

김광식식 최초 연구논문 발표

"일제의 식민지 불교정책으로 인한 31년산의 분립적인 상황, 통일기반 부재로 나타난 불교계의 모순 등을 극복한 1929년 1월의 승려대회는 불교개혁운동 그리고 식민지 정책 반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일제하 불교개혁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의 토대를 이룬 1929년의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를 구체적으로 조명 한 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광식 책임연구원이 오는 15일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소개할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승려대회의 경과와 개요, 증헌 등의 제정내용 및 성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씨의 이번 발표는 최근 불교학계가 법난과 승려대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불교개혁의 중요한 화두를 그은 4·10승려대회 1주년과 때를 같이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씨는 일제하의 불교계가 승려대회를 통해 불교계의 제 모순을 일거에 해소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초반이래 일제의 사찰정책을 비판하고 불교 혁신운동을 지속해 온 청년승려들의 의식이 1928년경 조선 불교청년회가 재기(再興)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집약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대회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은 청년승려들과 당시 불교계가 일제의 사찰령으로 인한 불교계의 모순을 사찰령 제정 이



김광식식

이영재의 혁신론도 조명

○...김씨는 지난달 31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은 한용운, 권상오 등의 불교혁신론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재일불교청년회원으로 혁신론을 서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

그의 불교 개혁론은 당시 불교계 제도의 근간인 사찰령 및 그에 비롯한 본말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제도개혁 즉 교단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체제를 불교교단 건설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재경 기자>

"북한주민 불교거부반응 없다"

지식층 '애국종교' 인식...남북불자 교류촉구

법혜스님 주장

진 '광복 50주년, 한국 종교인의 통일과제'라는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법혜스님은 "북한에서는 70년대 이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과 교회를 신축 복원하고, 종교인 양성기관인 대학 종교학과와 불교학원도 만들었다"며, 지난 4~5년간 북한 불교인과 10여차례의 접촉에만 만족해 온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법혜스님은 "남북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광복 50주년, 한국종교인의 통일과제 토론회

이런 논점에는 '불교인속학의 연구서설'(이창식), '중의 민족학적 일경향'(권무영), '영웅소설에 수용된 유불도(儒佛道) 사상의 성격과 서사적 기능'(안기수) 등 모두 15편의 논문이 실렸다.



통도사 (방포원정상요청규) 佛之宗家 (불지종가) 國之大刹 (국지대찰) 각기 다른 성(姓)들끼리 모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환

수도·단체생활 규율 엄중히 경고

여사나 반드시 화복해야 하고 가사업과 사발하였으니 항상 규율을 따라야 하네 절의 증가집이요 나라의 큰절이네

해설 통도사는 불보(佛寶) 중찰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는 신라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지금도 이 통도사의 금강계단에서는 비구·비구니계를 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계율의 근본 도량이 통도사이기 때문이다.

앞의 시구는 일주문 앞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주문의 양쪽에 힘있는 필체로 써여진 뒤의 시귀도 통도사의 사격(寺格)과 존엄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힘찬 글씨는 해강(海崗)의 필적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으니 절집 중의 증가요, 나라의 으뜸가는 사찰이란 뜻이다.

이 일주문은 통도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창건됐다고 전한다. 이후의 창건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두 시귀의 주련이 쓰여진 일주문의 중앙 현판은 '靈鷲山通度寺'라고 쓰여져 있으며 대원군의 필적이다.

(안동·경안중 교사)

이영재의 혁신론도 조명

이영재의 혁신론도 조명

○...김씨는 지난달 31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영재의 조선불교혁신론은 한용운, 권상오 등의 불교혁신론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재일불교청년회원으로 혁신론을 서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

그의 불교 개혁론은 당시 불교계 제도의 근간인 사찰령 및 그에 비롯한 본말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제도개혁 즉 교단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체제를 불교교단 건설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발굴요원 교육

17일부터 한국의 집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17일부터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문화재발굴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문화재 관련학과 졸업생·재학생 및 일반인이며 강의는 주1회로 25주동안 열린다. (02)266-6938.

육신과 혼 중 어느 것이 나입니까

문 제 육신이 있고, 제 육신 안에 전생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혼(魂)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이 저입니까? (서울 강남구 대치3동·최영민)

답 육신이 나오지 않고 의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쉽게 업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참 나가 아닙니다. 불성, 즉 영원한 생명의 불과업식, 부모의 정열이 상함을 이따가 생명이 탄생하는데 어느 것 하나를 떼어서 이것이 나이다 하겠습니까. 참 나는 발견하는 것이요, 아니 드러나는 것이지만도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잊게한 근본주체, 또는 자성불을 참구해보라고 합니다.

자성불은 더하고 덜함이 없이 찰나찰나 여여하게, 광대무변하게, 전체로서 돌아가는데 중생들이 개별적인 내내 극집하니 참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라고 할까 하고 자꾸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명을 구하기 전에 참으로 오묘하게 움직이는 나를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 누가 움직이게 했고 누가 말하게 했고 누가 어떻게 갖가지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그 근본을 캐어 보라는 것입니다. 캐어보라는

지상삼담

길을 묻는 이에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답을 드립니다. 이 지상삼담은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생에게 물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공부에 '특별한 경계'가 있습니까

문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경계를 체험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가 익으면 특이한 경계를 체험하게 되는지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정형순)

답 하루 종일 안팎으로 경계가 다가고 지나가고 하는데 따로 특별한 경계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안(公案) 아난게 없고 부처 아난게 없고 내자리 아난게 없습니다. 일체 경계에 그달리지 마십시오. 그달리면 마구애 속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부처를 이루겠다 해도 아니되고 이루지 않겠다 해도 아니 됩니다.

그냥 내 앞에 닥치는 것 마다하지 말고, 탓하지도 반기지도 말고 오는대로 놓도록 하세요. 왜 놓아야 하나 묻지도 말고 계속 놓는 직업인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망상이 떠오르는데

문 공부를 하려다보니까 수없이 망상이 떠올라 헤매게 되는데, 어느 때는 망상이 있기에 버티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바른 생각인지요. (경북 김천시 삼락동·정세영)

답 망상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망상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겠지요. 그러나 망상이 없다면 목적

이지요. 망상이 없으면 발전할 계기도 없을 것이요; 어차피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마음도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그래서 발전도 할 수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참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할 때나, 잠할 때나, 누우나 앉으나 나의 근본 주인공이 있으니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구나 굳게 믿고 여여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믿어 야 하지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잡혀있으면 좀처럼 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씨가 변해 올해 씨가 되었으니 작년 씨 찾다가 해를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승가면 죽은 사람 만날까요

문 제 집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제가 죽어서 저승가면 산 세상과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광주 광산구 장덕동·이천웅)

답 인생이란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졌다 한 걸음 나왔다가 돌아가듯이, 구름이 오다가 비가 되어 흩어지듯이 그렇게 오가는데 한 걸음으로 같이 지내 안에 착을 두지마십시오. 영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입세 ● 불교관련용품 ● 정교한 소식지 ● 지체홍보 ● 인쇄 ● 각종행사 ● 신상상품개발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할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동 중안)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환

대구광역시 중구 남설로 66-1 (053-252-9274)

연꽃방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43 전화 738-3833 (자택) 934-1748

정병의원 건강유지

당뇨·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 (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삼B/D 2층

불교서적의 모판

출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갈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증권그룹 계열사로 해외 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진적으로 인한 95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간부를 특별초빙 상임간부인력을 특별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불차 형원)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단위경영 책임자	00명	●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 자금 및 제반사항 회사지원
간부사원	00명	●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 기업경영경력 7년 이상 경험자 ● 봉사장르로 관리 기획분야 경험자 ● 영남권고 출신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이력서 1통
4. 문의: 서울 554-4449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조·항·출판·각종 유품 도자기·염주·목탁·태피리·개금·단청·불상·명화·승복·법복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43 전화: 739-2450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텐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실범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분상 조형 TAP(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악사 범종제작 및 대표로품 실적 다수

관악사 범종제작 대표 원광植(梵山)장공 (02)733-6141 (서울시부) (0331)283-2083(경남)

안내

귀는 심보하고 귀로 제법 고승대덕 은사님 법체행하시옵고 불사 손조로우시지요. 이복을 말하는 분이 다년간 부동신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 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좋은 장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충실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기도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가시니불

● 서울 중구로 건지동 110-43번지 2층 2호 ● 부산 남구 중앙로 100-10번지 1층 1호

청승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음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첫솔

과우로만 첫솔제작이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연반대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 동명연상동자점 096-01-239051 (서울시부) ● 전화: (02) 556-3076-7 ● 팩스: (02) 556-3078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천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시간 자유선택, 천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청청음 별도수업 실시

● 등록: 수시접수 (725-7527-9) ● 장소: 불교교육연구원(경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일관리)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포동 56-11 유평B/D (율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